

#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중국
	대학명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파견기간	2023년 9월 ~ 2024년 7월	
프로그램	■ 정규 □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중국어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교에서 일 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대학 생활 중 꼭 참여하고 싶은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만큼 교환학생으로 보낸 모든 순간과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모든 만남과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되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나의 소중했던 두 학기 간의 중국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보려고 한다.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교환학생 파견이 결정되고 출국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기대와 설렘을 느낄 여유는 없었지만 덕분에 두려워하고 겁낼 시간 또한 없었다.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은 비자 발급이었다. 중국에 파견되어 수학하는 교환학생이 취득해야 하는 비자는 유학 비자이며 수학기간 180일 이하인 경우 X2비자, 180일 이상은 X1비자가 필요하다. 중국 비자 발급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됐고 만약 발급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중국 비자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신청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비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과 서류(여권사본, 입학허가서, 입학허가서 사본, 온라인 예약증, 비자 신청서, 비자사진)를 제출하고 약 일주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발급받았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입국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 신청 날짜를 예약하기조차 어려웠고 긴 심사 기간을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상황이다.

비자 발급 이외의 준비 과정은 비교적 순탄했다. 물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과 결정을 해야 했지만 어렵지 않게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 먼저 출국 날짜는 기숙사 입주 가능 날짜와 파견 학교의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개강 일주일 전으로 정하였고 중국 항공사의 유학생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처음 출국할 때는 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23kg 수화물 하나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는 유학생 항공권을 이용하였다. 또한 출국 전 개인적으로 유학생 보험에 가입했다. 중국 대학의 경우 유학생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보험이 있지만 학교 수업일 이외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장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다. 만일을 대비하여 중국은행의 일명 판다카드와 하나은행의 길한통 카드를 준비해 갔다. 직접 생활해본 결과 카드는 하나만 준비해도 충분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송금하기 비교적 용이한 길한통 카드만 사용하였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준비의 마지막은 짐 꾸리기였다. 여권, 입학허가서 원본, 여권(비자)사진, 중국 카드, 각종 상비약과 처방약, 생활 용품, 옷가지처럼 기본적인 물품을 꾸려야 했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부피와 무게가 한정되어 있어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했다.

중국 생활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파견될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소소한 팁을 적어보려고 한다. 화장품과 샤워기 필터는 파견 기간을 고려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화장품의 경우 자신이 쓰던 제품을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샤워기 필터는 부피가 꽤 큰 탓에 반신반의하여 챙겼지만 중국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해본 결과 필수품이었다. 기숙사의 오래된 배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필터가 하루 만에 까맣게 변해버리고 욕안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샤워기 필터와 헤드, 호스를 구비하여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내가 생활한 중국 베이징은 표준어에 가까운 중국어를 사용한다. 중국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수도 베이징의 경우 표준어에 가까운 중국어를 구사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표준 중국어에는 없는 일화음이라는 발음 습관이 존재하여 처음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초반에는 듣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지만 약 한 달 동안 많이 듣고 말하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다.

베이징 물가는 생필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먹거리는 한국에서 보다 훨씬 저렴하다. 특히 과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한국의 과일 가격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하다. 중국 대학교는 교내에 많은 종류의 식당이 있어 정말 다양한 음식을 교외의 일반 음식점보다 싼 값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한 끼에 한화 2500~3000원 이내로 배부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비도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택시비가 매우 저렴하여 이동이 비교적 편리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교환학생 학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지역이었다. 중국은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의 역사, 정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학교를 선택하였다. 북경제2외국어대학교는 베이징 도심과는 조금 떨어진 5환에 있지만 복잡한 도심이 아닌 베이징 현지 사람들의 일상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또한 북경제2외국어대학교는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어 수업 과정이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여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경제2외대를 선택하였으며 외국어를 중점으로 하는 학교인 만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매우 풍부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 **나-2. 공항 - 학교**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공항의 대형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충북대학교에서 북경제2외대로 파견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사실 낯선 곳에서의 첫 여정이자 도전이라 겁도 조금 났는데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서 의지가 되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각자 23kg의 큰 여행가방 두 개와 기내용 작은 여행가방 한 개, 큰 배낭 한 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대형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대형 택시는 공항 택시 승강장의 안내 데스크에 가서 짐 개수, 인원수, 도착지를 제시하면 가격이 측정되고 차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약 30분이 걸렸고 톨게이트 비용을 포함하여 한화 약 40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모든 수업 과정은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유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초급 7개, 중급 5개, 고급 1개의 반에 수준별로 배정받았다. 수업 교과목은 중국어 독해, 문법, 단어, 문장구조 등 종합적인 내용을 배우는 精读, 말하기와 발표가 주가 되는 口语, 시청각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나누거나 글로 작성하는 视听说, 일주일에 두 개의 주어진 주제로 중국어 작문을 연습하는 写作, 중국의 문화, 역사, 경제와

관련된 지문을 읽고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阅读, 그리고 听力, 총 여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루에 두 과목의 수업을 하고 수업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전 수업만 있어 오후에는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충하거나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거나 북경 내의 여러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학교 내에 유학생 기숙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북경제2외대의 유학생 기숙사는 3가지 유형이 있고 가격과 구조가 달라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다. 세 유형 모두 2인 1실로 구성되어있고 A,B형은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층별로 공용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C형과 비교하여 두 배 가까이 비쌌다. (원래 B형에는 방 안에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두어서 사실상 A형과 구성은 똑같지만 사용 가능 면적이 조금 더 작다는 차이점이 있다.) 방에는 기본적으로 침대, 침구, 옷장, 책상과 의자,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었다.

#### 나-5. 교내·외 활동

중국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등 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학교 운동장이 매우 활기를 띠는데 중국 친구들은 저녁 식사 후 산책하는 습관이 있어 산책을 하는 학생들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간단한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로 매일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나 또한 매일 저녁 운동장에 나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중국의 대학생들도 동아리 단위, 학생회 단위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행사나 교내 공연이 많았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내 문화제 행사였다. 북경 내의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에서는 문화제 행사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유학생 비중이 높은 북경제2외대도 당연히 그 대상이었다. 문화제 행사는 교내 각국의 유학생들이 국가 별로 부스를 마련하여 전통 의상과 음식 등 자기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이다. 교내 문화제를 통하여 학교 내에서 사귀 중국 친구들과 여러 나라의 유학생 친구들에게 그동안 말로만 전했던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을 통하여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나아가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실 문화제가 열리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행사에 참가하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각 나라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고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중국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심지어는 학교와 같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집에 다녀온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학교 내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중국의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활했던 북경제2외대는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문에 얼굴인식 게이트와 보안 요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학교에서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 내에서 만큼은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은 저렴한 배달비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이 매우 흔한데 학교 기숙사에 지낼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 정문 밖에 배달 음식을 받는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자신의 배달 번호를 확인하고 배달원이 두고 간 음식을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또한 타오바오 등 쇼핑 어플을 통하여 저렴한 값에 여러 종류의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택배를 시킬 일이 매우 잦다. 학교로 오는 모든 택배는 학교 북문 안쪽의 택배 센터로 배달되며 쇼핑 어플에 제시되는 비밀번호를 무인택배함에 입력하여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의 교환과 환불이 매우 용이하여 이 점이 정말 편리했다. 음식 배달과 택배 모두 방문 앞으로 바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정문까지 찾으러 다녀와야 해서 번거롭기도 하였지만 학교 안에서의 생활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중국에서 생활해보기 전에는 중국에 얼마나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처음 중국에 갔을 때 한식과는 다른 향과 맛에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식당의 음식부터 하나씩 도전하며 중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생소한 음식들을 하나씩 도전해 나가면서 그 다양함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음식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과일과 밀크티를 한국에서 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특히 학교 식당의 음식은 양이 많고 맛도 괜찮은데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한식은 거의 모든 요리에 설탕이 들어갈 정도로 단맛이 중요하지만 중식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짭 맛의 강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교환학생 첫 학기에는 국경절 연휴 기간에 시안 여행을 다녀왔다. 베이징에서 시안까지는 고속열차로 약 5시간 정도 걸린다. 같은 중국이지만 내가 지내던 북경과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중국의 천년고도답게 도시 곳곳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존해 있어 역사의 도시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시안 성곽 안에 위치한 명나라 때 시간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종루와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중국어로 번역한 불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어진 대안탑의 야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슬람교 소수민족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회족거리도 북경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있었다. 시안의 역사와 모습 이외에도 시안의 음식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로우지아모와 량피, 시안 지역의 특산 음료인 빙펑, 방방면, 후라탕 등의 산시 음식은 베이징에서 먹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그 지역의 특색이 느껴진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중국은 지역별로 먹는 음식들이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첫 경험이라 정말 신기하고 인상 깊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이라 상상 이상으로 사람이 많아 제대로 관광을 하기는 어려웠다.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이나 중국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중국의 연휴 기간에 여행은 추천하지 않는다.

첫 번째 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이 시작됐을 때 마침 역대 최대 규모의 빙설대축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 여행을 다녀왔다. 저녁에 베이징 역에서 침대 기차를 타 기차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하얼빈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배웠던 중국의 침대 기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다.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느새 창밖으로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이어졌고 점점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얼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빙설대축제는 수많은 얼음 조각들 사이에서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 했지만 정말 예뻐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려고 노력했다. 하얼빈은 러시아 문화가 유입되어 전문대가, 성 소피아 대성당 등 러시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아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음식과 관광지 말고도 하얼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얼빈의 중국어이다. 하얼빈에 도착하자마자 탄 택시에서 기사님의 중국어가 정말 잘 들리는 신선한 경험을 했다. 계속 베이징에서 지내면서 얼화가 강한 베이징 사람들의 중국어 발음에 적응했다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보통화에 거의 가까운 표준 발음의 중국어를 들어 너무 반갑고 그 순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다. 동북 지역에서는 표준 보통화에 가까운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차이를 직접 체감해보니 정말 흥미로웠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두려움 보단 설렘으로 시작했던 중국 생활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짧게만 느껴졌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새로움이 배움으로 다가와 뭐든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북경에서 생활했던 시간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만나 즐겁게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었던 곳인 만큼 중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쌓여 애정과 관심이 커졌다. 앞으로 직접 경험한 기억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끈기를 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학업으로서의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중국어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중심으로 부가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공부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우여곡절과 힘듦도 있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학업 측면에서는 중국의 문화, 언어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며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와 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러 나라와 중국의 관계, 중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인식, 다른 국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등을 눈으로 보며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타국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낯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의 학습과 배움의 방향을 꾸려나가는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 것들이 설레게 느껴질 정도로 기대가 더 컸고 그 기대 덕분에 무엇이든지 처음인 낯선 곳에서 도전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교환학생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저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꾸준히 교류하며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보고 느끼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